

먼저 자기의 감옥에서 나와 선생 위해 기도하라

작성일 : 2011. 8. 1. (월) 새벽 2:00

작성자 : 정은조

[다리굴 기도굴에서 철야기도를 했습니다. 선생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.]

* 하나님 말씀 *

너희의 기도로 선생의 운명이 좌우되나
진정 선생 위해 기도하지 않는구나.
나는 그런 너희를 보며
이 시대의 희망을 간구한다.

너희의 하나님, 주 여호와다.
이 세상을 이 지구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
주 예수, 성령, 여호와 성삼위가 늘 의논한다.
이 지구를, 이 땅을 어찌할꼬.
그 손의 가장 깊은 곳은 바로 너희 섬리사라.
어찌하나.
내 사랑하는 자들,
이들을 어찌하나.
너무 사랑해서

내 나라 천국 데려가고 싶지만
이 어찌하나.
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 너무 많고
내 사랑하는 자 선생이
그곳에서 저러고 있으니
성삼위의 손길도 쉽지 않구나.
쉽지 않다.

너희의 기도가 그래서 필요하다.
너희의 기도가
이 세상을, 그리고 선생을 살릴 것이며
너희의 운명도 달리할 것이다.
아직도 기도하지 않는 자
선생 위해 깨어나 기도하지 않는 자
이 섭리에 너무 많으니
내 안타깝고 답답하다.

섭리사 모든 자가 깨어 선생 위해 기도할 때
기적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겠느냐.
사도시대 옥문이 열리는 것.
그저 성경의 이야기더냐.
시대 옥문을 너희의 기도로 열 수 있다.
진정 사랑하는 자 위해 기도할 때
나의 마음이 움직여 그 옥문을 열지 않겠느냐.
그러나 나도 원하는 그 일이
나만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

하늘의 바람과 이 땅의 행실이
함께 이뤄 가는 것이니
그래서 너희에게 기도하라, 전도하라
늘 애기함이다.

내 사랑하는 자,
나의 몸 되어 움직이는 선생 위해 기도하라.
그의 옥문을 여는 기도를 하여라.
그의 옥문을 여는 전도를 하여라.
기도해도, 전도해도 그냥 의식 없이 하면
그 공적이 쌓이긴 해도 큰 효과가 없고
선생의 옥문을 따는 데
직접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.

너희가 매일 애타게 기도함이 차고 넘칠 때
바로 그 옥문이 열릴 것이다.
너희의 마음의 옥문부터 열어라.
사탄에게 갇혀 있는 너희 마음의 옥문 열어
너희의 영을 구해 내
너희 선생 위해
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 되어라.

너희의 기도가 진정 그를 살림을 알지만
너희 스스로 갇힌 너희의 감옥 때문에
선생을 살려 내지 못하고 마니
오히려 너희 마음의 옥문까지 열어 달라

선생에게 매달리는구나.
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이다.
섭리사에 그런 자들이 너무 많다.

섭리사 나를 위해 살겠다는 수많은 자들 있지만
진정 사랑하는 선생 위해 이 애타는 기도
계속 꾸준히 하는 자 참 드물다.
사람이 꾸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안다.
그러나 사랑하는 자의 간힘을 두고
한 시도 기도의 손을 놓지 않을 때
너희의 바람이 이뤄질 것이다.
그만큼 너희가 간절히 바랄 때 이뤄질 것이다.

나 여호와와는 나 예수는 나 성령은
너희의 그런 기도를 바란다.
진정 사랑하는 자 선생의 육신을 돌보듯,
너희 마음의 옥문 스스로 따고 나와
온전하고 꾸준한 기도, 쉬지 않는 기도하길 바란다.

내 사랑하는 자들아,
너희의 기도 진정 바란다.
너희의 행함 진정 바란다.
그래서 오늘도 내가 함께 하며함께하며
너희의 고백을 듣고 함께 하였다.함께하였다.
오늘의 이 뜨거움으로
깨지지 않고 계속 기도하길 바라노라.

너희의 기도로 선생 살린다는 것
꼭 기억하여라.

너희의 사랑, 신랑 나 여호와가.